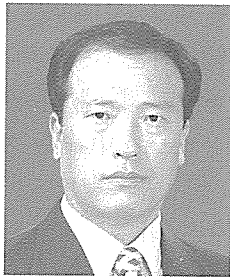


“차(茶) 한잔의 평상심(平常心)으로”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필요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아 미래예측이 어려워며 서두른다고
모든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연구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차 한잔의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평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자는 학업을 하게 된 동기와 지금 까지 흘러온 길을 돌아켜보면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그다지 힘든 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학부 졸업을 앞둔 1979년 가을 학기에는 박대통령 서거로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생각된다. 실험실에서 졸업논문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도교수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런 차도 마실 줄 알아야지”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생소한 지리산 작설차 한잔을 내어주신 것이 나와 차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 때 필자는 맛을 본 다음 선생님께 “이런 차 말고 커피에 설탕을 진하게 타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 기억이 난다. 그 해 말 경 모기업의 식품효소 관련분야에 기술영업 지원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였다. 반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의 신규 품목으로 녹차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이 필자의 기억에는 '지도교수께서 주셨던 그 맛도 지지리도 없던 차' 하는 기억이 먼저 떠올랐다. 그로부터 본인이 녹차분야를 맡게 되면서 차 재배단지 견학 및 다인(茶人)들을 만나면서 차의 의미를 접하게 되었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는 녹차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한다. 필자



金相武
(강릉대 해양생명공학부 교수)

가 유난히 기억하는 우리 차문화(茶文化) 중의 하나는 봉차(封茶)의식이다. 혼사가 성립되면, 차 한봉지를 양가가 서로 주고 받았는데 이를 봉차라 한다. 오늘날 봉차는 봉채(封采, 혼인식을 하기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채단과 예장을 보내는 일)로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한다. 봉차는 “병이 없이 사시사철 푸른 차나무처럼 굳건하고 맑은 삶을 살아라”하는 의미라고 한다. 한창 차(茶)사업에 골몰하던 중에 다시 학업을 하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고 석사학위를 시작하였고, 학위를 받았을 때에는 시간강사 및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이외에는 취직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특히 필자의 경우에는 장래가 촉망된다는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학업을 시작하였기 때문

에 다시 일반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1년 정도(참 힘든 기간이었음) 유학 준비 끝에, 코넬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적인 사유, 전공 및 필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캔사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시작하였다. 나의 지도교수로 내정된 분은 세계적으로 발효식품분야의 거두 중의 한분이었으며, 그 당시 대학원생이 약 25명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K대학에 계시는 선배 유학생(이 선생님에게 석사학위를 다시 하고 있었음)이 지도교수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는 바람에, 비행기연착으로 미국에서의 첫날 밤을 공항에서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한껏 받았는데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도교수 문제로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의 부담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첫 학기에는 학과장을 임시 지도교수로 하였으며, 그 다음 지도교수로 선택한 선생님은 유태계 미국인(작고)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효소 추출' 연구를 함께 시작하였다. 그 당시 필자도 이미 이름난 선생님 밑에서 학위(장학금도 보장된 상태였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으나 내 복이 그렇지



언어알젼 제조를 위하여 언어알을 체취하는 장면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차 한잔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약 2년이 지난 다음 갑자기 지도교수의 연구비 사정으로 RA(연구조교)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의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었으며 그 날은 아내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학교를 옮기느냐 아니면 큰 도시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여 등록금을 마련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사람의 앞 일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때에 경험하게 되었다. 그 당시 학장(College Dean)이 연구장학생(Research fellowship) 1명을 선발하였는데 많은 미국인 및 유학생 중에서 본인이 선택되는 영광을 안았다.

녹차마시며 스트레스 풀어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초음파를 이용한 효소추출이었는데, 고강도 초음파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몇 시간 정도 실험을 하면 옆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소음이 심하였다. 주위에서의 많은 불평으로 주로 밤 시간에 실험을 해야하는 올빼미 처지가 되었다. 학위가 끝날 무렵에 한국에서의 직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 Post-Doc 자리를 알아보려

고 관련분야가 있는 각 대학에 이력서를 발송한 다음 졸업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 당시 미국의 이민법은 졸업 후 2개월 이내에 귀국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지도교수와의 약속도 그 해 12월까지만 장학금 지원이 약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새해에는 귀국을 하든

지 아니면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든지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 때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니 차한잔 평상심으로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으며 문득 당나라 조주스님의 茶風이 떠올랐다.

당나라의 고승 조주(趙州·778~897) 선사의 말씀 중에 '깍다거(喫茶去)'라는 화두가 있다. 조주스님은 도를 물으러 오는 수행승들에게 차를 권해 '조주청다(趙州請茶)'라는 고사를 만들었다. 깍다거(喫茶去)는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나'라는 뜻이다. 조주현 관음원(觀音院)으로 수행자 두명이 찾아왔다. 그 당시 출가자들은 여러 곳을 편력하며 이 분야야말로 내 스승이라고 여겨지면 찾아가 선문답을 거는 것이 상례였다. 그중 한 수행자가 조주스님에게 절하고 물었다.

“불법(佛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조주스님이 말하였다.

“이 곳에 온 일이 있는가?” “한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차나 한잔 들고 가게나.” 또 다른 수행자가 조주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무엇이 조사(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 곳에 온 일이 있는가?”

“예, 한번 온 일이 있습니다.” “차나

한잔 들고 가게나.”

옆에서 듣고 있던 원주(院主)스님이 물었다.

“스님, 어찌서 이 곳에 한번도 온 일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 모두에게 깍다거(喫茶去)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주, 자네도 차나 한잔 마시게.”

조주선사는 온 자와 오지 않은 자, 의심하는 자 모두에게 '깍다거(喫茶去)'라고 하였다. 이것은 차와 선이 한경지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좁은 강의실 및 연구실에서 생활하는 필자로서는 가끔 연구도 하나의 수행과정 아닐까 하곤 한다. 지금도 필자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졸업 논문을 준비할 때의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컴퓨터실에서(여러 학생들이 사용하다보니 예약을 해야 했으며, 필자는 주로 저녁시간을 이용) 논문을 입력하고 있었는데 약 3주 정도 작업한 분량을 자판 하나 잘못 입력하여 모두 지워져버렸을 때의 그 날 밤의 달은 왜 그렇게도 밝던지?

정확한 판단이 시간절약

위스콘신대학(메디슨)에서 같이 일하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고 이삿짐을 보낸 다음 차를 몰고 올라갔다(켄사스주에서는 북쪽). 메디슨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보통 2년 정도는 연구를 해 주어야하는데 강릉대학교에 직장을 잡게 됨에 따라 약 9개월 정도 머물렀다. 지금도 함께 일하였던 Dr. Etzel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 당시 내가 맡은 연구는 한번 사용한 효소를 다시 재생하는 연구

었다. 친화성(Affinity)를 이용한 실험에서 선택된 효소는 이론과 달리 결합력이 워낙 강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Dr. Etzel(Engineer 분야)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실험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연구 내용을 바꾸자고 하였더니 분위기가 다소 서먹하게 되었다. 필자가 귀국하는 관계로 다른 학생이 인계를 받았는데 1년 넘게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소식만 나중에 들었다.

연구를 하다보면 성공한 경우도 많지만 실패 또한 적지않다. 그 당시 필자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 실험을 하기 전 완벽한 문헌조사가 필요하며, 이론적인 원리가 실제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해야 하며, 정확한 판단이 시간을 절약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연구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재 필자는 그 당시의 경험으로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서두르는 마음은 화 불러

필자는 1998년 IMF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한국과학재단 중견 과학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래 재단에서의 지원조건은 월 2천달러였으나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1달러당 9백원씩 계산을 해주었다(필자는 1달러당 1,812.41원에 환전). 연구비 지원의 기쁨은 IMF로 사라지고, 담당

선생(Dr. Penner)과의 약속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은 뒤로 미루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한잔의 평상심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순리대로 뭔가 이루어지게 되겠지' 하는 마음에 미국으로 향하였다.

필자는 유학 중에 교환교수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부러웠으며, 아내에게도 교환교수로 가면 다시는 먹고 운동하는 데에 금전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학생시절보다 금전적으로는 더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다. 어느 누군가 "인생은 산행(山行)과 같이 항상 높낮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실감나는 기간이었다고 할까. 오리건에서의 생활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참 컸다고 생각된다. 곰팡이에서 효소정제 및 특성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효소정제 동안 칼럼에 용액이 새어나와 약 3주간 공들여 정제하였던 실험이 일순간에 허사가 되었다. 그 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오후에는 아이들하고 가까운 공원에서 함께 운동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허탈한 심정으로 집으로 오는 도중에 길에 조그만 나뭇가지가 놓여 있어 핫김에 발로 찼더니 노란 말벌(Yellow jacket)이 한마리 날아오름과 동시에 발등(여름이라 슬리퍼를 신었음)이 따끔하였다. 점심 식사 후 열이 나고 온 몸에 반점이 생겨 병원에 있는 선배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호흡곤란이 일어나면 응급실로 가야한다는 말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였는지. 그러나 항히스타민약을 먹은 다음 별 다른 추가 징후가 없어 아이들과의 약속도 못 지키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었다. 왜 그 당시에는 '차 한잔의 평상심'을

가지고 느긋하게 생각을 할 수 없었는지 후회가 되곤 한다. 아마 높은 환율 때문에 연구를 서둘러야지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항상 내재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래도 연구는 계속되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8개월만에 귀국을 하였다.

귀국 후 해양수산부 수산특정과제에 필자의 과제가 선택되어 현재 수행 중이다. 오늘날 수산발효식품인 액젓(어간장)산업은 고식염 및 장기간의 숙성기간 때문에 판매에 위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능성 강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과제에서의 항암물질 연구는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 실험 결과의 성패 여부는 미리 예측이 힘들지만 필자는 차 한잔의 평상심(平常心)으로 꾸준하게 맡은 바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실험 결과의 일부는 마스크(중앙일보 및 위생식생활신문)의 관심을 가져왔다.

필자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그러나 인생은 새옹지마(塞翁之馬)와 같아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려우며, 세상 일이란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으니 서두른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강의 및 연구 평가, 연봉제, 학부제 등의 급변하는 대학의 분위기로 단 시일 내에 뭔가를 내어놓도록 강요받고 있는 현실과 한정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대학교수는 갈수록 초조해지고 협소한 마음으로 바뀔 확률이 높은 직업이라고 본다.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차 한잔의 마음으로 느긋하고도 기다릴 줄 아는 평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㉟